

방학·휴가, 다(茶) 배워보자



김포 다도박물관은 방학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도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예명 원 손민영 이사장이 진행하는 다도교실 모습.

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탄생지에서는 ▲7월 28~31일 제13차 '한국차문화연수'가 개최된다. '조선시대 차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차문화연수에서는 초의학술재단 이사장 율운 스님이 제다법과 다구, 다례, 다악(茶樂) 등을 아우르는 조선시대 차문화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초의선사 탄생지에서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차문화 강좌가 열린다. '중국차 행다법(7월)' '명정시대 행다법(8월)' '소수민족의 행다법(9월)'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행사 당일 오전 7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셔틀 버스가 운영된다. 참가비는 차비 포함 5만원. (061)285-0303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김포 다도박물관'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도 체험 행사를 연다. 7월 29일에는 차의 성분과 효능을 비롯한 차 이론 강좌와 차우리는 법, 마시는 법 등을 익히는 다도체험이 진행되고, 30일에는 친인척간의 바른 호칭법과 큰 절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8월엔 5일 발효차 체험하기와 동양 3국 다례법 비교, 6일 전화예절·공공장소 예티켓 배우기, 12일 꽃차 종류 체험, 13일 생활예절·전통예절 교육 등이 마련된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 (031)998-1000

'새벽술길'로 유명한 해남 ▲대흥사(주지홍산)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어린이들이 전통

차(茶)와 불교문화의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다도 아카데미는 8월 2일부터 9일까지 7박8일간 진행된다. 차 마시는 법을 비롯해 차의 역사와 종류를 배울 수 있고 직접 차맛을 따고 만들어보는 제다 체험도 할 수 있다. 일지암 등 대흥사 주변 차 문화유적지도 탐방하고 참선과 생활예절 지도도 이뤄진다. 다도아카데미 지도법사 법원 스님(대흥사 성보박물관장)은 "어렵게만 느끼던 차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차에 대한 흥미를 불교에

온 가족 참여 행사 풍성 주변 사찰 탐방 참선도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61)534-5502

다구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정주사가 개최하는 '대한민국 다기대전'과 갤러리 루브의 '청대 차도자 명품전'을 눈여겨 보자.

▲'대한민국 다기대전'은 7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흥덕구 운전동 한국공예관에서 개최된다. 정주사가 주최하고 정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와 한국공예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천년의 흥, 숨쉬는 다기'란 주제로 펼쳐진다. 천한봉 도예명장을 비롯해 도예가 이화천, 한완수, 서광수, 김세용씨 등의 작품과 정주국제공예비엔날레 역대 초대작가 작품 등 100여점이 전시된다. 도자 다기 외에도 유리다기, 옻칠다기, 차실 목공예품 등이 전시된다.

행사 기간 중에는 온 가족이 미술관에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월병첨머페스티벌'도 열린다. 다기대전 참여 작가들이 릴레이 워크숍을 열어 생생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다기 제작과정과 자신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말차·연잎차 시연과 도자물레체험도 마련된다. 남상우 정주시장은 "다도와 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다기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이번 전시는 우리 다기의 가치와 도공의 열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ww.cheongjubiennale.or.kr

'유물 차도구'를 보고 싶은 사람은 ▲'청대 차도자 명품전' 전시장을 찾아보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갤러리 루브가 7월 30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자사호 수집가 김영효씨의 소장품인 청대 자사 작품



갤러리 루브가 7월 30일까지 개최하는 '청대 다도구 명품전'에 선보이는 찻잔(위)과 자사호

100여 점이 소개된다. 특히 청대 초의 유명한 자사 작가인 해맹신(海孟臣, 1598-1684)의 자사호도 공개될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27일 오후 3시에는 '오래된 다도구로 마셔보는 보이차 시음회'도 열린다. 시음회에서 자사호와 보이차에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다. (02)3478-0815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외 40여종의 차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인류 문화속의 茶

2. 신비의 음료

① 커피의 발견

80년대 초 대학가 젊은이들은 값싼 라면을 먹으면서도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낭만이라고 여겼다. 커피숍은 같은 또래 젊은이들의 회합 장소로 젊음과 이상, 세상에 대한 정의를 표출하던 공동의 공간이었다.

지금은 도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외국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은 다양한 마케팅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사람들의 유혹한다. 커피는 아직도 서구의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만끽하려는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커피가 전해진 것은 1890년대 초, 외국 사신과 선교사들에 의해서다. 고종은 아관파천 때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처형인 손탁 여사의 권유로 처음 커피를 마신 후 이것에 매료되어 덕수궁에

피 선후도 1위의 소비국이 되었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차, 커피, 카카오, 플라 열매 등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식물을 어떻게 이용하게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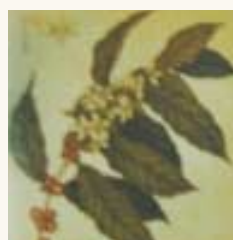
예멘의 한 수도원 염소들이 7월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울어대며 목동들을 귀찮게 고했다. 목동들은 궁리 끝에 염소에게 마술을 건 식물을 찾아내어 이맘이슬람교 사회에서 지도자에게 알렸다. 이맘은 이 식물의 잎과 열매를 냄비에 넣고 짓이기고 가열하여 물을 부어 마셔보았다. 희미했던 기억들이 뚜렷해지고 잠이 오지 않았으며, 천로, 문화적 동질성을 만끽하려는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후 밤마다 수도승과 이맘들은 이 카와라(hawrah) 자국과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로 커피의 옛 이름의 씨앗으로 활기를 찾았다.

이 커피 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 최초의 커피 이용자는 수도승이였

산업화만큼 빠르게 일상 음료로 자리매김 외국에선 음식이나 약용으로 이용되기도

서양식 집을 짓고 커피와 서양음악을 즐겼다. 이후 왕실에서 커피가 애용되었으며 조선 상류층의 사교와 국민 접대에 자주 커피가 이용됐다.

손탁 여사는 고종이 손탁 여사에게 하사한 정동 '손탁 호텔'에 처음 문을 연 커피숍은 당시 상류사회의 사교



커피나무 코코아 아라비카의 가지. 윗가지는 초록색 잎을 가진 소맥목으로 10m 높이까지 자란다.

장소이자 외교의 중심지로, 한국 최초로 문을 연 찻집이었다.

역관 김홍욱이 유배를 당하게 되자 고종과 세자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 독을 넣어 고종을 독살하려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후 커피를 마시는 다방이 명동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화가, 문학가, 영화인 등 예술가들이 인생과 자유를 토론하고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던 지식인들의 문예 살롱이 바로 다방이었다.

이렇게 커피는 근대화와 함께 다가온 서양문화이었다. 지금은 우리의 산업화만큼이나 빠르고 다양한 게 일상의 음료로 자리 잡았다. 커피 소비 또한 인스턴트커피 중믹스 커피

다. 차(茶)가 불가에서 집을 짓기 위해 마셨던 수형 음료이며, 다의 양생에 차가 응용되었듯이 커피 또한 이슬람교의 수도승들이 밤에 종교 행사를 치루기 위한 각성제로 이용됐다.

한때는 커피를 제대로 끓이는 것이 세신부의 중요한 덕목이 될

만큼 생활의 중요한 일과이기도 했다. 이슬람교에서는 고대의 음료인 와인을 금지하고 인간의 정신을 각성시키는 커피를 합법적인 이슬람의 음료로 삼았다.

한편 에티오피아 갈라족은 커피 원두를 끓여서 버려와 함께 으갠 다운 굵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었으며, 환을 만들어 음식이나 약용으로 이용했다.

1511년 종교지도자들은 커피에 알코올 성분이 있다하여 피고석에 커피를 담아 놓고 토론했을 때 커피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고, 커피를 압수해 거리에서 태웠고 소비하는 사람을 매질하기도 했다.

■ 이창숙 연구원(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리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에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 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砂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에게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찬경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담도 크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구성 : 과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곁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